

지역 기업·개인, 울산대 신산업 인재 양성 지원

U100 지역산업육성 기금 2천만원 전달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DX 등 활용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지역 산업계와 함께 추진해온 '중소·중견기업 혁신 파트너십 U100'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계-산학-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인재양성·기업 혁신에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울산대는 16일 교내 행정본관 3층 교무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 중소·중견기업 혁신 파트너십 U100' 지역산업육성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금 조성에는 (주)금화 구현민 대표이사, (주)인텔렉투스 김승욱 대표이사, (주)타이로스코프 박재민 대표이사, (주)에이티지 임강민 대표이사, 청담치과의원 임태근 대표원장이 참여했다.

이동구 울산대 초빙교수(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사)테크노섬나회장도 개인 기부자로 동참해 총 2,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U100은 울산대가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산업 혁신 협력 모델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100곳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대학,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울산대가 16일 울산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 혁신 파트너십 'U100' 지역산업육성 기금 전달식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울산대 제공

울산대는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 연구에 반영하고, 대학의 인재·연구 역량을 지역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기업 맞춤형 연구, 디지털 전환(DX) 지원, 신산업 분야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대는 이를 바탕으로 U100참여 기업과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계와 대학, 지역사

회가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식 울산대 글로벌대학추진단장은 "U100은 지역 기업과 대학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가는 협력 모델"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기술을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그 성과가 지역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